

스스로 말하고, 뜻 세우고, 행하게 하라

나는 사회학 전공으로 학·석사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문화인류학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나는 그곳 대학에서 1년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4년 반 문화인류학, 여성학, 사회학 관련 강의를 하고 있는 소위 비정규직 시간 강사다. 이 원고 청탁을 받고 격정도 뒀었다. 그러나 나는 학부모, 특히 지금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됐을 다양한 어머니들을 2001~2003년 사이에 만나 자녀교육과 관련한 그들의 '어머니되기'의 고충에 대해 박사학위논문을 썼고, 이후 한국 대학생들의 스펙쌓기와 해외연수 경험에 대한 연구를 따로 또 함께 해왔다. 강의를 하다 보니 20대와 접한 경험이 많고 그들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많아 흔쾌히 원고청탁 수락을 했다.

내게 주어진 과제는 20대와 만나면서 또 각종 연구나 분석에 기반 해 20대의 의식과 정체성을 분석하고 20대들을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제안해 달라는 것이다. 짧은 지면상 고민 끝에 그 순서를 좀 바꾸어 먼저 그들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제안하고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지와 관련해 20대의 의식과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20대가 제 목소리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할 틈·기회·여유를 줘라. 둘째, 자기 세대의 경험과 관점의 틈 속에 20대를 집어넣어 재단하고 판단하고 다그치지 마라(또는 과잉보호하지 마라). 셋째, 20대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행하고, 스스로 넘어져 실패하고, 스스로 일어나보고, 스스로 성공의 길을 찾도록 옆에서 인내를 가지고 그저 지켜보라.

그렇다면 왜 우리는(특히 그들의 부모이자 선생인 40대와 50대 성인들) 그렇게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당연히 그들이 살아온 한국의 시대적 맥락과 상황이 달랐고 그들의 경험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의 삶에 성공했든 성공하지 못했든 그것은 당신들의 삶이니 그들에게 그 잣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그들은 당신들이 살고 있던 시대와는 너무나 다른 상황에서 살고 있으니 말이다. 한국사회의 변화는 한국을 연구하는 모든 외국학자들이 거의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로 빠르다.

그렇다면 2010년 한국을 살아가고 있는 20대의 의식은 어떤 것일까?

그들은 "부자되세요!"가 연말연시 인사가 돼버린 물질만능주의 사회, 끊임없이 자기를 업그레이드하라는 정인 명령 속에서 불가능한 자유를 꿈꾸려고 하는 신자유주의의 바람 속에 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질문의 홍수에 휩쓸려 어디로 가야할지 헤매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회는 지금 그들이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고민할 틈은커녕, 그들이 왜 부자가 돼야 하는지, 왜 성공을 해야 되는지, 또는 왜 부모들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지 생각할 틈과 여유를 주지 않는다. 대부분의 20대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을 안락하게 해 주는 다양한 상품(명품 분유부터 영어유치원, 컴퓨터, 스마트폰 등 다양하다)속에서 적어도 부모세대나 선생세대에 비해 자신들의 별다른 노력 없이도 풍족한 생활을 해왔다. 그러나 가끔 똑똑한 학생들은 "왜 부자가 돼야 하는지, 또는 왜 성공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며 '귀차니즘'에 빠진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좀 났(?) 똑똑한 학생들은 대부분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은 취업스터디, 자격증 취득 등 스펙쌓기에 열 올리고 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당론의 홍수에 휩쓸려 어디로 가야할지 헤매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사진은 동국대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자료검색을 하고 있는 모습.

제 목소리 낼 기회 주고 과잉보호 말고 인내로 지켜봐라

20대만의 정체성·색깔을 직접 부딪쳐 만들어가야 한다

'왜?'라는 질문을 해 본 적도 없고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본 적도 없이 그저 '스펙쌓기'에 몰두하느라 너무 바쁘다. 새벽부터 밤중까지 도서관에서,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와 국내, 국외 봉사활동을 하느라, 또 친구들과 술도 먹고 클럽도 가야하기에 때론 강의실에서 지쳐 얼드려 자고 있다. 난 가끔 화가 나다가도 그들의 모습이 안타까워 깨울 수가 없다. 내가 다른 프로젝트 때문에 인턴부했던 몇몇 초등교사, 고등교사들이 자기 수업에서 자는 학생들에게 느꼈던 비슷한 심정을 토로했듯이 말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정체성은?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직접 만들어야 한다. '88만원세대'는 386세대 아니 486세대 경제학자이자 내 지인이기도 한 우석훈 교수가 펴낸 <88만원 세대>에서 우 교수가 20대들에게 불인 이력 일 뿐이다. 또 다른 사회과학자들은 그들을 '위기의 청년세대'라 불렀고, 함께 출구를 찾고 싶어했다(송호근 외, 2010, <위기의 청년세대: 출구를 찾다>). 난 그들이 20대에 대한 애정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안다. 그들과 소통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한 그들의 선생이라는 것을 안다. 바로 나처럼.

소통과 공감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색깔은 그들이 직접 부딪쳐 만들어가야만

한다. 속된 말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말이다. 그래서 울 초 고교를 자퇴한 김예슬양과 그녀를 둘러싼 20대들의 논쟁, 그리고 최근 나온 한 권의 책 제목, <이십대 전반전: 불안은 강요하는 세상에 던지는 옐로카드>이 나를 설레게 한다. 그 노란 책표지에는 '못된 경쟁 강요하는 세상에 경고! 함께 살아가는 후반전을 상상하라!' 등목금, 집세, 취업부터 국적, 정치에 대한 고민까지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는 20대들의 생생한 목소리'라고 적혀있다.

그래서 그 20대의 목소리가 난 반갑고 고맙다. 마치 진흙탕에서 피는 연꽃처럼,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조용히 피어나고 있는 그들의 목소리에 이제 난 귀를 쫑긋 세울 것이다. 그들이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리고 무소의 뿔처럼 씩씩하게 혼자서 가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말이다. 그래서 난 마치 서툰 해리포터처럼, 왕초보 소크라테스 문화인류학 강사로서 선언한다, 20대가 스스로 말하고, 뜻을 세우고, 행하게 하라!



박소진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20대 인터뷰

“여성의 역할 강조할 때 세대차이”

다른 환경서 자란 세대의 차이는 당연하다는 유정현씨

무역회사에서 근무 중인 유정현(26·사진)씨는 “젊을 때 많은 일 도전하고 싶은데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40~50대 부모님 세대들과 차이를 느낀다”고 말했다.

유씨는 “30~40대의 사람들은 나보다 연령대가 높지만 서로 비슷한 현대적 생활방식을 누리며 성장해왔고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며 “그러나 50대 이상의 중년층 세대들과는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관심사가 다르거나 동일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도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른 것 같다”고 답했다.

세대 간의 차이가 지역, 빈부, 남녀, 이념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라고 생각하면 적은 없었는지에 대해 유씨는 “몇 십 년 동안 전쟁과 가난, 급속한 경제성장 등을 통해 각 세대가 서로 다른 시대와 성장 환경으로부터 느끼는 차이점들이 공감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직장생활 3년 차인 유씨는 30~40대를 가장 많이 접한다. 유씨는 “이들은 중년

층 이상의 세대와 20대의 중간 자적 세대가기 때문에 양쪽 세대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씨는 세대 차이를 느낄수록 세대 간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유씨는 “세대 차이를 느낄 때 그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한 역동적인 과정으로 생각한다”며 “공인없는 대화·충돌·갈등을 겪은 후에 비로소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경청하는 자세”가 세대 간 화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유씨는 “자신이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지적하기 보다는 서로간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배려하려는 마음가짐이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내너지자

“겪지 못했다는 이유로 차별 말아야”

세대간 차이는 에너지라는 이재민씨

종종 연장자와 이야기를 할 때 혹은 아랫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어렸을 때는 말아야...”라는 표현을 자주 한다. 이재민(23·대학생·사진)씨는 타 세대들과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 이러한 표현이 나오면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한다.

이씨는 “세대가 다르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하지만 겪어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차이를 줄 때 불쾌한 건 사실이다”고 말했다.

20대들은 주로 취업, 진로 문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한다. 이씨는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에는 30대와 대화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한다. 그는 “특히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고 나서 대학 복학 후 졸업하면 어느덧 30대 초입에 들어선다. 그러기에 조언을 많이 구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려고 한다”고 말했다.

40~50대와 세대차이를 느낀다는 이재민씨는 그들과 심각한 주제를 갖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야기 주제를 정치·경제·사상으로 이끌어 내지 않는다. 특히 이 세 가지의 주제를 선택

함에 있어 대립되기 쉬운 주제에 이기에 삼가는 편이다”고 말했다.

이씨는 세대 간 차이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 이씨는 “세대 간 같은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다양하고 서로 이질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 같다. 그것을 수용하고 이해해 서로간의 득이 될 경우는 에너지로 비유해도 좋을 듯싶다”고 했다.

또한 이씨는 다른 세대들이 20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씨는 “특히 진로문제에 ‘이것은 아니다 저것을 해야 한다’는 말보다는 같이 들어주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선택하는 힘을 기르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내너지자

「현대불교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호국법화경 사경봉안 독송기도 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지혜도량·자비도량 세계불교수도원 구룡사에서는 오는 10월 23일 그간 불자님들께서 정성으로 쓰신 법화경 사경을 탐속에 모시는 사경봉안법회를 봉행합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는 인도불교의 중흥은 물론 폐허로 방치되어 있던 부처님의 4대성지를 복원하고 불교도의 품으로 되찾아 오는데 앞장서고 있는 인도 마하보디 쏘사이어터 사무총장 스님의 초청법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가안녕과 불교중흥을 발원하는 이 성스러운 대법회에 동참하시어 국가와 민족의 화합을 기원합니다.

회주 석도림·일백만 법화행자 일동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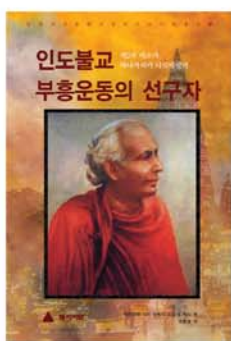
일시 : 2554년 10월 23일(토) 오전 10시부터

장소 : 천안 세계불교수도원 구룡사

(충남 천안시 수신면 백자리 288-2, 전화 041-552-9666~8)

※서울 법화정사 문의처 : 02-928-1331

인도불교 부흥운동의 선구자 아나가리카 다르마팔라



조준호 역, 신국판, 552쪽, 불사리탑 권, 값 20,000원

인도불교 부흥운동의 선구자 아나가리카 다르마팔라의 전기 한글로 번역되어 출간되었습니다.

부처님의 발자취가 서려있던 위대한 성지들이 타 종교인들에 의해 훼손되고 버려졌을 때 목숨을 건 투쟁을 통해 이 성지들을 불교도의 품으로 되찾아오고, 그분의 가르침이 잊혀졌던 인도땅에 다시 한번 불법의 씨앗을 싹트게 했던 다르마팔라.

이 책을 통하여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한 위대한 인간의 치열했던 삶과 사상을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그의 평생에 걸친 염원이었던 불교부흥운동의 햇볕을 다시 한번 밝힐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불기 2554년 10월 23일 회주 석도림·일백만 법화행자 일동 합장

